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에 관한 分析

韓炅錫* · 朴性植*

Abstract

Research about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n The DongyiSuseBowon Gabobon

Han Kyung-Suk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Background and Purpose

At the year of 2000,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quired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which is presumed as the copy of 『GaboBon』.

According to Lee Sung-Su who is the great-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was worked by Lee Jin-Yoon who is the grandson of DongMu's older brother, and it was copied by Han Min-Gab and now is owned by Lee Sung-Su who is the son of Lee Jin-Yoon.

2. Method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f 『HamsanSachon DongyiSuseBowon GaboGubon』.

3. Result and Conclusion

1) Each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is classed as that of exterior and interior and then classed again as that of exterior's exterior, exterior's interior, interior's exterior and interior's interior.

2) The degree of completion is high at the chapter of Soeumin and Soyangin comparing with that of Taeumin and Taeyangin which don't exist as the contrasted explanation.

3) Soeumin's exterior-disease is divided Taiyang(太陽) and Yangmyung(陽明)'s disease by the sweating, that's interior-disease is same to SinchukBon(辛丑本). BaboBon already have the concept of UIKwang(鬱狂) and MangYang(亡陽), so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f Soyangin is early establish comparing with other constitution.

4) The Cold and Hot,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the disease theory of Soyangin can be accessible to opposite side of Soeumin's that. The disease of exterior's exterior is only explained abdominal pain and diarrhea without the concept of Mangeum(亡陰) disease, but at the time of SinchukBon the concept of Mangeum-disease is invented.

5) There is many different with SinchukBon that the classification of symptoms and diseases of Taeumin, and not mentioned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the airs and fluids metabolism.

6) Healthy Energy(保命之主) show us that JungKi(正氣) is key-point of the utility of the symptoms and diseases.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신저자:한경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parkss@dongguk.edu

I. 緒論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1893年 7月 13日 부터 東武가 58歲인 1894年 4月 13日까지 漢南山中에서 著述¹⁾한 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東醫壽世保元중 改抄되지 못한 부분과 篇名정도였다.

2000年 四象體質醫學會의 李濟馬 100周年 追慕事業 때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를 통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抄錄한 것으로 추정되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란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東醫壽世保元 研究에 대한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現在까지 四象醫學은 病證論 분야에서 매우 많은 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나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연구는 宋²⁾의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등이 있으나 실제로 甲午本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되지 않고 있으며, 甲午本과 관련된 研究는 朴³⁾의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가 있었으며, 2000년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이 발견된 이후로 李 등⁴⁾의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韓 등⁵⁾의 “『東醫壽世保元』의 藥方에 관한 研究”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가 있었다.

이에 본 著者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の 病證論的 特徵을 分析한 結果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本 研究는 東武의 從孫인 李鎭胤의 主導로 1940年 韓敏甲이 抄錄하고, 東武의 從曾孫인 李聖洙가 現在 所藏하고 있는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을 대상으로 하여 病證論的 特徵을 살펴보았다.

먼저 甲午本の 篇名에 대해서 살펴보고, 大略的인 病證을 分類하고 要約하였다. 그리고 表裏內外關係로 기술한 病理機轉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誤謬들을 살펴 보았다.

2. 本 研究에서 사용한 版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정하였다.

1)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은 ‘甲午抄錄本’이라 칭하였다.

2)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甲午年에 著述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甲午本’이라 칭하였다.(甲午抄錄本을 통해 甲午本の 原形에 가까운 형태로 復元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3) 現在 傳하지 않지만 東武가 庚子年까지 改抄한 東醫壽世保元의 原本을 ‘庚子本’이라 칭하였다.(庚子本の 少陰人論, 少陽人論, 太陰人論은 辛丑本과 동일하다. 따라서 病證論的 說明에서는 庚子本과 辛丑本을 동일시 해도 타당하다.)

4) 活字화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 東醫壽世保元⁶⁾을 ‘辛丑本’이라 칭하였다.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 (卷之四) 34

2)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1994. ; 5(1) : 71-79

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학회지. 1994. ; 6(1) : 81-87.

4)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49-61

5) 韓昞錫,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藥方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74-93.

韓昞錫,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94-109

6)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Ⅲ. 本論

1. 甲午本の 篇名에 대한 分析

甲午本の 篇名은 表病證과 裏病證 篇名만 洪 등⁷⁾의 四象醫學原論에 기술된 적이 있으며, 최근 발견된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에 나타난 病證論의 篇名은 [표 1]과 같다.

[표 1] 甲午抄錄本에 나타난 病證論의 篇名

少陰人 病證論 篇名
少陰人 外感 膈病論
少陰人 內觸 胃病論
少陰人 膈胃病篇尾 泛論
少陽人 病證論 篇名
少陽人 外感 膀胱病論
少陽人 內觸 大腸病論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
太陰人 病證論 篇名
太陰人 外感 腦頤病論
太陰人 內觸 胃脘病論
太陽人 病證論 篇名
太陽人 外感 腰脊病論
太陽人 內觸 小腸病論

朴⁸⁾은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에서 甲午本 篇名의 특징으로 “첫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小한 臟을 중심으로 病證論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臟의 概念은 臟腑論의 四焦概念에 基礎하고 있다. 둘째 四象人의 病證은 모두 外感病과 內觸病으로 二大別하였으며, 外感은 表病이고 內觸은 裏病이다. 셋째 性情과 四象人의 病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性은 表氣를 傷

하고 情은 裏氣를 傷하고 性에 의한 表病보다 情에 의한 裏病을 더 重한 病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이 外의 泛論에 관한 부분에서 少陰人과 少陽人의 甲午本 泛論 篇名은 “少陰人 膈胃病篇尾 泛論”,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라 하여 表裏病의 명칭을 합쳐서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내용에서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을 비교하여 쉽게 설명하고자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治驗例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辛丑本과 비교해 보면 辛丑本 少陰人 泛論은 모두 甲午本의 내용이고, 辛丑本 少陽人 泛論은 甲午本에서 削除되거나 追加된 내용이 확인된다.

甲午本과 辛丑本의 太陰人論과 太陽人論은 泛論이 없다.

2. 甲午本 病證論의 分類과 特徵

1) 少陰人 病證論

東武는 少陰人 고유 病證으로 太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太陽病은 表之表病에, 陽明病은 表之裏病에, 太陰病은 裏之表病에, 少陰病은 裏之裏病에 配屬⁹⁾하였다.

甲午本의 分類는 辛丑本에서 表病論의 鬱狂과 亡陽, 裏病論의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정립되었다.¹⁰⁾

表病論의 病證分類는 甲午本의 太陽病과 陽明病에서 辛丑本의 鬱狂과 亡陽으로 바뀌게 되는데, 甲午本에서도 鬱狂과 亡陽의 初證, 中證, 末證 概念¹¹⁾은 있었지만, 단지 初期 概念 定立의 단계로 보이며 新축본과 같이 4大病證名의 概念으로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7) 李濟馬著, 洪淳用, 李乙浩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5 : 147.

8)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前掲書 : 86.

9) 甲午本 少陽人 泛論 1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陽明病即 少陰人之表病也 太陰少陰病 即少陰人之裏病也 而太陽病表之表病也 陽明病表之裏病也 太陰病裏之表病也 少陰病裏之裏病也

10) 四象醫學, 前掲書 : 153.

11)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31條 胃家實 脾約 二病 如陰證之太陰 少陰病 虛實證狀 顯然不同 自太陽病 表證因在時 已爲兩路分岐 元不相合 太陽病 表證因在而 其人如狂者 鬱狂之初證也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鬱狂之中證也 陽明病 潮熱 狂

裏病論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의 病證分類는 改抄되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雜證에서 太陰病의 瀉心湯證, 陰毒證, 黃疸, 水結胸, 寒實結胸과 少陰病의 藏厥證, 下利清水證, 陰盛格陽證, 乾霍亂關格病은 개초되면서 [표 2]와 같이 부분적으로 편제를 이동하게 된다.

[표 2] 甲午本과 辛丑本의 少陰人 太陰病과 少陰病 雜證 比較

		甲午本	辛丑本
太陰病	篇第고정	瀉心湯證, 陰毒證	
	篇第이동	黃疸 水結胸, 寒實結胸	乾霍亂關格病
少陰病	篇第고정	藏厥證, 下利清水證, 陰盛格陽證	
	篇第이동	乾霍亂關格病	黃疸 水結胸, 寒實結胸

太陰病의 黃疸, 水結胸, 寒實結胸은 개초되면서 少陰病의 뒤쪽에서 기술되며, 甲午本의 少陰病 뒤쪽의 乾霍亂關格證은 개초되면서 太陰病 뒤쪽으로 옮겨진다.

少陰人 病證의 表病論에서 發熱, 惡寒하는 太陽病과 發熱, 不惡寒, 汗自出하는 陽明病(脾約病)으로 구분하였다. 裏病論에서 腹痛, 自利, 不渴하는 太陰病과 腹痛, 自利, 口渴하는 少陰病과 같이 구분하였다.

傷寒論의 六經중에서 太陽病, 陽明病, 太陰病, 少陰病과 類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太陽病胃家實證, 太陽病厥陰證, 太陰病陰毒證, 太陰病黃疸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傷寒論의 視覺과는 다른 東武의 고유한 視覺으로 수립된 새로운 病證임을 알 수 있다.

辛丑本에서 表病論의 病證을 發熱惡寒無汗하는 鬱狂과 發熱惡寒有汗하는 亡陽을 汗出의 有無에 의해 二大分類를 하고 있지만, 甲午本 表病論에서는 太陽病에서 發熱惡寒有汗과 發熱惡寒無汗이 함께 설명되고, 陽明病에서 傷寒論의 脾約證만을 少陰人 陽明病에 배속시

켜, 表病論 病證을 바라보는 시각이 辛丑本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甲午本 少陰人 泛論은 모두 27條文이 기술 되는데 藏結과 관련된 3條文은 改抄되면서 少陰人 裏病論으로 이동하였, 나머지 24條文은 추가되거나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표 3]은 甲午本 少陰人 病證과 藥方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표 3] 甲午本 少陰人 病證分類 및 藥方分類의 要約

		太陽病 (表之表病)		
少陰人 外感 病論		(發熱惡寒無汗) 芎歸香蘇散 加減正氣散 (發熱惡寒有汗)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胃家實	厥陰證	
	外感 病論	(不更衣內實大便難) 川芎桂枝湯 黃芪蘇葉湯 升陽八物湯 (然微汗出潮熱微喘)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健脾壯胃湯	薑朮壯胃湯 獨參官桂理中湯 (囊縮毒氣入腹時) 巴豆丹半粒	
		陽明病 (表之裏病)		
少陰人 內觸 病論		(自汗出 小便利) 補中益氣湯 升陽八物湯 回陽大補湯 健脾壯胃湯 (發熱汗多) 人參黃芪附子湯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太陰病 (裏之表病)		
	內觸 病論	藿香正氣散 香砂理中湯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桂附藿陳理中湯		
		黃疸	陰毒	
內觸 病論	芎歸葱蘇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大便滑利:或加生附子五分,大便秘閉:加巴豆半粒或全粒)		
	少陰病 (裏之裏病)			
內觸 病論	獨參蘇葉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桂附藿陳理中湯 巴豆丹 (口燥心煩下利腹脹滿) 桂附藿陳理中湯 獨參附子理中湯 (兼身體痛疼諛語) 芎歸葱蘇理中湯 獨參蘇葉理中湯			

言 微喘直視者 鬱狂之末證也 太陽病 發熱惡寒 汗自出者 亡陽之初證也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亡陽之中證也 陽明病 發熱汗多者 亡陽之末證也 蓋 鬱狂證 都是 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 身熱 自汗出也

李 등¹²⁾은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에서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은 汗出의 有無를 中心으로 ‘發熱惡寒無汗者’와 ‘發熱惡寒有汗者’ 또는 太陽病胃家實證과 陽明病脾約證으로 병증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甲午本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表病은 惡寒의 有無에 따라서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 表病論은 太陽病과 陽明病의 2大分하거나, 泛論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太陽病胃家實證, 太陽病厥陰病, 陽明病의 3大分¹³⁾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少陽人 病證論

少陽人의 고유 病證으로 張仲景所論大青龍湯小柴胡湯證, 李子建所論腹痛泄瀉, 王好古所論三消病, 張仲景所論傷寒譫語翼信所論陰虛午熱의 네 가지로 區分하여 張仲景所論大青龍湯小柴胡湯證을 表之表病에, 李子建所論腹痛泄瀉을 表之裏病에, 王好古所論三消病을 裏之表病에, 張仲景所論傷寒譫語翼信所論 陰虛午熱을 裏之裏病에 배속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辛丑本에서 表病論의 少陽傷風證과 亡陰證, 裏病論의 胸膈熱證과 陰虛午熱證으로 정립되었다.¹⁴⁾

少陽人의 病證에 있어서 表病論에서 發熱惡寒 脈浮緊 身痛 不汗出而煩燥하는 大青龍湯證과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하는 小柴胡湯證에 해당하는 表之表病과 腹痛泄瀉하는 表之裏病으로 구분하였다.

裏病論에서 但熱無寒하는 猪苓湯證과 太陽少陽陽明 三陽合病, 陽厥, 三消證하는 白虎湯證에 해당하는 裏之表病과 傷寒譫語와 陰虛午熱의 裏之裏病으로 구분하였다.

少陽人 泛論에서 東武의 고유 病證에 既存概念의 病證을 配屬하였는데 浮腫, 喘促, 結

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 瘧疾, 惡寒發熱身體痛은 表之表病에 配屬하였고,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은 表之裏病에 配屬하였다.

이는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少陽人病 中風吐血嘔吐腹痛食滯痞滿五證 同出一屬而自有輕重 浮腫喘促結胸痢疾寒熱往來胸脇滿五證 同出一屬而自有輕重”으로 바뀌어 병의 輕重 概念으로 바뀐다.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은 甲午本에서 表病의 範疇에 속해 있으나 辛丑本에서는 中風에 獨活地黃湯, 吐血에 十二味地黃湯을 사용하여 裏病의 範疇에서 다루어 놓았다.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證과 藥方을 표 4과 표 5와 같이 맺구로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그러나 맺구되는 병증에서 少陰人 胃家實과 少陽人 結胸의 表裏之表裏의 配屬이 다르고 病證論 중에서 표 4와는 다른 病證들끼리 맺구로 설명하는 부분이 보였다. 맺구되는 처방에서는 柴胡四苓散(少陽人 表之裏病)과 黃芪蘇葉湯(少陰人 表之表病), 補中益氣湯(少陰人 表之裏病)과 柴胡瓜蒌湯 또는 千金導赤散(少陽人 表之表病), 錦上添花白虎湯 또는 渡海白虎湯(少陽人 裏之表病)과 獨蔘附子理中湯(少陰人 少陰病) 등과 같이 相對되는 藥方의 表裏之表裏의 配屬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표 4〕 少陰人과 少陽人의 陰陽正對論의 病證

		少陰人 病證		少陽人 病證	
陰陽相對病證	表之表	太陽病表證因在而少腹硬滿	胃家實	表之表	寒熱往來胸脇滿之證
	表之裏	脾約		表之裏	結胸
	裏之表	太陰證	黃疸	裏之表	腹痛 或泄或不泄之證
	裏之裏	少陰證	躁證	裏之裏	上消
					中消
					陰虛午熱
					傷寒譫語

12)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前掲書 : 49

13) 甲午本 少陰人 泛論 五條 : 少陰人病 有六大證 一曰少陰病 二曰陽明病 三曰太陰病陰毒證也 四曰太陽病厥陰證也 五曰太陰病黃疸證也 六曰太陽病胃家實證也

14) 四象醫學. 前掲書 : 153.

[표 5] 少陰人과 少陽人의 溫冷正對論의 藥方

	少陽人 處方	少陰人 處方
陰陽正對處方	荊防敗毒散	川芎桂枝湯 芎歸香蘇散
	柴胡芫蕪湯 千金導赤散	獨蔘八物湯 補中益氣湯
	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獨蔘附子理中湯
	清涼散火湯	薑朮破積湯
	七味苦蔘湯	香砂理中湯
	柴胡四苓散	黃芪蘇葉湯

少陰人과 少陽人 表病과 裏病을 구분하는 기준을 身寒, 身熱, 腹寒, 腹熱로 제시¹⁵⁾하고 있지만 辛丑本에서 모두 사라진다.(표6)

이러한 부분들은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거의 모두 삭제되었다.

[표 6] 少陰人과 少陽人 表裏病의 主證

主證	表病	少陰人	少陽人
		裏病	身熱 腹寒

泛論에서 특이할만한 것이 “稟性에 軟弱하면 陰虛午熱之證이 많고, 剛急하면 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이 많으며 이는 모두 心疾이다.”¹⁵⁾라고 하여 稟性에 따른 구체적인 病證까지 지칭하고 있다.

표 7은 東武의 少陽人 病證과 藥方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東武는 傷寒譴語證을 泛論에서 裏之裏病으로 배속¹⁶⁾시켜 놓고 病證論에서는 裏之表病의 胸膈熱證중에서 六味湯과 石膏滑石의 治驗例 등을 기술하고 있고,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表病論의 亡陰證 範疇에서 설명하면서 荊防地黃湯을 제시하였는데 甲午本 당시에 亡陰證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

[표 7] 甲午本 少陽人 病證分類 및 藥方分類의 要約

張仲景所論小青龍湯小柴胡湯證(表之表病)			
少陽人	大青龍湯證	小柴胡湯證	結胸證
	(發熱惡寒而寒多) 荊防敗毒散 (發熱惡寒而熱多) 防風通聖散	(寒熱往來) 荊防敗毒散 (嘔) 千金導赤散 (耳聾) 柴胡芫蕪湯	(水逆還吐結胸)甘遂 (汗出短氣結胸)柴胡芫蕪湯 (燥渴譴語結胸)柴胡芫蕪湯合白虎湯
	表之表의 五大綱病證		
外感膀胱病論	(浮腫)木通大安湯 (寒證喘促)靈砂散 (短氣喘促)柴胡芫蕪湯 千金導赤散 (結胸)甘遂散 柴胡芫蕪湯 (寒熱往來脇下硬滿)千金導赤散 (發熱惡寒身痛煩躁)荊防敗毒散	桂麻各半湯, 桂婢各半湯證 (大便過一晝夜有餘而 不通)白虎湯 (大便 不過一晝夜有餘而 通) 千金導赤散 柴 胡芫蕪湯	
	李子建所論腹痛泄瀉(表之裏病)		
柴胡四苓散 八味苦蔘湯			
王好古所論三消病(裏之表病)			
少陽人	胸膈熱證		三消病
	地黃白虎湯 綿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下消強中)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內觸大腸病論 陽毒白虎湯(陽明病但熱無寒證,三陽合病,陽毒發斑)		
張仲景所論傷寒譴語翼信所論陰虛午熱(裏之裏病)			
傷寒譴語		陰虛午熱	
六味湯 등의 治驗例만 있음		水火既濟湯 七味苦蔘湯 七味猪苓湯 六味地黃湯	

할 수 있다.

李 등¹⁷⁾은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에서 첫째로, 少陽人 裏之表病人 大腸病 胸膈熱證에서 譴語, 但熱無寒, 熱多寒少, 寒多熱少의 病理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따로 譴語의 病理機轉은 裏之裏病으로 설명하는데 裏之表證과 裏之裏證에서 동시에 설

15) 甲午本 少陽人 泛論 14條. 少陽人 稟性軟弱者 多有陰虛午熱之證 稟性剛急者 多有中風吐血嘔吐腹痛痞滿之證 此心疾也 雖有其藥 最爲難治

16) 甲午本 少陽人 泛論 十條 “少陽人 裏之裏病 大綱有二 一曰 陰虛午熱也 二曰 傷寒譴語也”

1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上揭書 : 56-57

명되는 讖語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둘째로, 但熱無寒, 熱多寒少, 寒多熱少의 病에서 寒熱을 胃中의 熱氣, 大腸의 寒氣라고 하여 正氣와 邪氣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단지 惡寒과 發熱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少陽人 裏病證에서 아래의 표8과 같이 裏之表, 裏之裏 病證의 緩急을 구분하였다. 下消強中은 胃火肉爛之久病이라 하여 표 8의 설명과 일치하지만, 陰虛午熱은 大腸火骨蒸之新病¹⁸⁾이라 하여 표 8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표 8] 李 등의 少陽人 裏病證의 緩急 區分

裏之表病	裏之裏病
胸膈熱證(急病) 消渴病(緩病)	傷寒讖語證(急病) 陰虛午熱證(緩病)

3) 太陰人 病證論

太陰人の 고유 病證으로 惡寒發熱長感病, 陽毒燥澁,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有腹痛中風. 虛勞夢泄無腹痛中風の 네 가지로 구분하여 惡寒發熱長感病을 表之表病에, 陽毒燥澁을 表之裏病에,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有腹痛中風을 裏之表病에, 虛勞夢泄無腹痛中風을 裏之裏病에 配屬하였다.

이러한 分類는 辛丑本에서 表病論의 背佳頁 表病과 胃脘寒病, 裏病論의 燥熱證, 陰血耗竭證으로 정립된다.¹⁹⁾

太陰人の 病證에 있어서 表病論에서 惡寒發熱身體痛하는 麻黃湯證, 全體無汗 而額上顙上有汗 一汗病不解 而屢汗病解하는 長感病에 해당하는 表之表病과 面赤眼紅身發斑黃, 目疼鼻乾不得臥에 해당하는 陽毒燥澁의 表之裏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太陰人の 表病의 病證은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表病과 裏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太陰人 表病論에서 사용되는 新定方 역시 辛丑本 視覺에서 表病과 裏病의 藥物인 麻黃, 葛根 등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裏病論에서는 既存의 雜病만을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으로 구분하여 아직 體質病證의 體系가 정립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泛論은 少陰人論, 少陽人論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표 9]는 東武의 太陰人 病證과 藥方을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표 9] 甲午本 太陰人 病證分類 및 藥方分類의 要約

惡寒發熱長感病 (表之表)		
太陰人	(麻黃湯證) 麻黃發表湯 (長感病) 熊膽散 桔梗生脈散 葛根解肌湯 升麻開腦湯	
	陽毒燥澁 (表之裏)	
	(陽毒) 加減解肌湯 皂角大黃湯 (目痛鼻乾增寒壯熱燥澁) 葛根解肌湯 天門冬潤肺湯 (頭面項頰赤腫) 皂角大黃湯 (體熱腹滿自利) 桔梗生脈散 或樗根白皮一錢 麝香三分	
外感腦佳頁病論	腹痛自利食滯痞滿痢疾浮腫有腹痛中風 (裏之表)	
	(腹痛自利)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食滯痞滿腿腳無力)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下痢膿血) 桔梗樗根皮丸 (腹脹浮腫) 黃栗五味子膏 (小兒大人腹痛下利舌卷不語中風) 桔梗生脈散 調服麝香	
	虛勞夢泄無腹痛中風 (裏之裏)	
太陰人 內觸胃脘病論	(無腹痛下利而有舌卷不語中風) 牛黃救急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 (夢泄 虛勞) 清心山藥湯 清心蓮子湯加龍骨一錢	

18)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32條 “論曰 下消強中 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 大腸火骨蒸之新病…”

甲午本 少陽人 泛論 40條 “新病急病 藥必勝病可也 久病緩病 罕藥 有效吉也…”

19) 四象醫學 上揭書 : 153.

4) 太陽人 病證論

太陽人 病證論은 庚子本에서 改抄되지 않고 辛丑本에 그대로 기술되었다.

5) 保命之主

病證論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 保命之主로 辛丑本에서 기술되지 않는 내용이다.

少陰人은 陽煖之氣가 保命之主이고, 少陽人은 陰淸之氣가 保命之主이고, 太陰人은 呼散之氣가 保命之主이고, 太陽人은 吸聚之氣가 保命之主이다.²⁰⁾ [표 10]

이는 邪氣中心이 아닌 正氣中心의 病證論이 運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四象人의 保命之主

	保命之主	本(脆弱部位)	標(強盛部位)
少陰人	陽煖之氣	膈胃	膀胱大腸
少陽人	陰淸之氣	膀胱大腸	膈胃
太陰人	呼散之氣	腦佳眞胃脘	腰脊小腸
太陽人	吸聚之氣	腰脊小腸	腦佳眞胃脘

3. 甲午本の 表裏內外 區分을 통한 病證論 接近

1) 臟腑論에서 보는 人體의 前後上下內外의 區分

臟腑論은 甲午本에서 완성된 篇이다. 따라서 東武의 人體의 前後上下內外를 바라보는 관점은 甲午本과 改抄된 庚子本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다.

臟腑論의 내용을 통해서 人體의 前後上下內外의 關係를 그려보면 前後關係는 人體를 앞뒤로 나누어 앞쪽에 舌下, 膈間兩乳, 臍, 前陰을 뒷쪽에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을 설명하였다. 또한 內外關係에 있어서도 胃脘, 胃, 小腸,

大腸의 四腑와 肺, 脾, 肝, 腎의 四臟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上下前後內外의 視覺은 體質別 病理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이상의 내용은 [표 11]와 같다.

[표 11] 臟腑論의 人體 上下前後內外 關係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上焦	肺	頭腦
膈間兩乳	胃	中上焦	脾	背脊
臍	小腸	中下焦	肝	腰脊
前陰	大腸	下焦	腎	膀胱

2) 甲午本 表裏를 통한 病證論의 認識

① 甲午本 篇名을 통한 表裏의 構造

甲午本の 篇名에 나타난 表裏의 篇名은 體質別 脆弱部位를 중심으로 表病은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用語를 사용하였고, 裏病은 胃脘, 胃, 小腸, 大腸의 用語를 사용하여 區分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甲午本 篇名을 통한 表裏의 部位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肺	頭腦	⇨ 太陰人
膈間兩乳	胃	脾	背脊	⇨ 少陰人
臍	小腸	肝	腰脊	⇨ 太陽人
前陰	大腸	腎	膀胱	⇨ 少陽人
	↓ 裏部		↓ 表部	

20) 甲午本 少陽人 泛論 3條. 少陰人 以陽煖之氣 爲保命之主 故 膈胃爲本 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淸之氣 爲保命之主 故 膀胱大腸 爲本 而膈胃爲標也
甲午本 太陰人 裏病論 8條. 太陰人 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 故 腦佳眞胃脘爲本而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爲保命之主 故 腰脊小腸爲本而腦佳眞胃脘爲標

② 少陰人 少腹硬滿과 其人如狂의 病證

甲午本에서 表病과 裏病의 대표적인 病證인 其人如狂과 少腹硬滿을 膈間陽氣困熱과 胸間胃氣怕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病理을 설명하고 있다.[표 13]

胸間⇔膈間, 陽氣⇔胃氣, 困熱⇔怕寒의 表裏로써 맺구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篇名에서 脆弱部分을 중심으로 病證論을 구성한 것과 부합된다.

이 내용은 改抄되면서 病證認識의 變化에 따라 胸間胃氣怕寒은 大腸怕寒으로 膈間陽氣困熱은 腎陽困熱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다.

[표 13] 少陰人 少腹硬滿, 其人如狂의 病理 比較

甲午本	胸間胃氣怕寒 (少腹硬滿)	膈間兩乳	胃	脾	背脊	膈間陽氣困熱 (其人如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						
辛丑本	大腸怕寒 (少腹硬滿)	前陰	大腸	腎	膀胱	腎陽困熱 (其人如狂)

③ 少陽人 大腸病譫語證과 膀胱病惡寒證

少陰人 胸間胃氣怕寒, 膈間陽氣困熱과 같이 少陽人 病證內에서 膀胱病惡寒證²¹⁾과 大腸病譫語證²²⁾를 사용²³⁾하였는데 이는 甲午本 篇名에서와 같이 少陽人의 脆弱한 部分을 중심으로 病證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3) 表裏之表裏를 통한 病證論의 認識

東武는 篇名에서와 같이 큰 틀로 表裏를 나누고 이를 다시 작은 表裏로 나누어 表裏之表裏의 네 개의 틀로 病證의 分類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少陰人 病證 表裏之表裏의 區分

少陰人은 表病證과 裏病證 部位에 대해서 人體의 後面인 膈部와 膀胱部를 表部로 하였고, 前面인 胃部와 大腸部를 裏部로 하였다. 그리고 表裏를 더욱 세분화하여 偏大之臟인 膀胱部와 大腸部를 表部로 하였고, 偏小之臟인 胃部와 脾部를 裏部로 하였다. 따라서 膀胱部는 表之表, 膈部는 表之裏, 大腸部는 裏之表, 胃部는 裏之裏로 인식하였다. 少陰人은 太陽病, 陽明病, 少陰病, 太陰病의 四大病證으로 分類하여, 太陽病은 表之表病, 陽明病은 表之裏病, 太陰病은 裏之表病, 少陰病은 裏之裏病²⁴⁾으로 表裏之表裏를 구분해 놓았다. 이를 하나로 그려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甲午本 少陰人의 表裏之表裏 部位의 區分

裏之裏 ⇐	胃 (少陰)	背脊 (陽明)	⇒ 表之裏
	偏小之臟		
裏之表 ⇐	大腸 (太陰)	膀胱 (太陽)	⇒ 表之表
	偏大之臟		
	裏 (人體前面)	表 (人體後面)	

東武는 病證論에서 太陽膀胱, 太陰大腸²⁵⁾, 太陰病泄瀉大腸之泄瀉, 少陰病泄瀉胃中之泄瀉²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膈膜部位를 裏

21) 甲午本 少陽人 泛論 13條. 表之表病 大目有五 ... 五曰 發熱惡寒身體痛

22) 甲午本 少陽人 泛論 10條. 少陽人 裏之裏病 大綱有二 ... 二曰 傷寒譫語也

23)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0條. 膀胱病 惡寒證 ... 大腸病 譫語證 ...

24) 甲午本 少陽人 泛論 1條.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陽明病即 少陰人之表病也 太陰少陰病 即少陰人之裏病也而 太陽病表之表病也 陽明病表之裏病也 太陰病裏之表病也 少陰病裏之裏病也

25)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28條. 論曰 太陽病 ... 始發於太陽膀胱之陽氣 ... 太陰大腸之氣 ... 始發於太陰大腸之胃氣 ... 太陽膀胱之氣 ...

26)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49條. ... 蓋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

局(表之裏)로 膀胱部位를 表局(表之表)²⁷⁾로 설명하였다.

② 少陽人의 病證 表裏之表裏 區分

少陽人은 表病證과 裏病證 部位에 대해서 人體의 後面인 膂部와 膀胱部를 表部로 하였고, 前面인 胃部와 大腸部를 裏部로 하였다. 그리고 表裏를 더욱 세분화하여 偏大之臟인 膂部와 胃部를 表部로 하였고, 偏小之臟인 膀胱部와 大腸部를 裏部로 하였다. 따라서 膂部는 表之表, 膀胱部는 表之裏, 胃部는 裏之表, 大腸部는 裏之裏로 인식하였다. 이를 그려보면 [표 15]와 같다. 少陽人의 病證中에서 張仲景所論大靑龍湯證小柴胡湯證은 表之表病, 李子建所論腹痛泄瀉은 表之裏病, 王好古所論上消中消下消證은 裏之表病, 張仲景所論傷寒譫語證與龔信所論陰虛惡熱證은 裏之裏病의 四大病證으로 구분²⁸⁾해 놓았다.

[표 15] 甲午本 少陽人의 表裏之表裏 部位의 區分

裏之表 ⇐	胃	背膂	⇒ 表之表
	偏大之臟		
裏之裏 ⇐	大腸	膀胱	⇒ 表之裏
	偏小之臟		
	裏 (人體前面)	表 (人體後面)	

病證論中에서 部位와 病證을 연결시켜 사용한 용어를 찾아봤을 때 少陰人論은 病證用語와 表裏之表裏가 잘 맞아 들어가는 반면에 少陽人論은 [표 16]과 같이 膀胱病 惡寒證²⁹⁾은 表之表病³⁰⁾이고, 大腸病 譫語證³¹⁾은 裏之裏病이고³²⁾, 膂膜之病 中風은 表之裏證³³⁾이고, 膀胱之病 浮腫³⁴⁾은 表之表證³⁵⁾이라 하여 동무가 구상하였던 [표 15]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少陽人 惡寒證, 中風, 浮腫, 譫語證의 表裏之表裏 配屬

	(胃)	背膂病	⇨ 中風(表之裏)
譫語證⇨ (裏之裏)	大腸病	膀胱病	⇨ 惡寒證(表之表) 浮腫(表之表)

③ 太陰人의 表裏 區分

太陰人論은 甲午本에서 庚子本으로 고쳐지면서 내용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다.

甲午本에서는 病證에 대해서 表裏之表裏로 나누어 놓았지만 어떤 部位나 臟腑로 설명한 條文은 보이지 않는다.

4) 甲午本 表裏區分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곳

① 少陰人 表之表裏의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구도

이미 앞서 [표 14]와 같이 少陰人 表裏之表裏의 구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와 부합되지 않는 부

27)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22條. 或曰 吾子論 少陰人 胃家實 脾約病曰 膀胱者 陰之分局而表局也 膂膜者 陽之分局而裏局也 此則以背部上下分表裏者也...

28) 甲午本 少陽人 泛論 2條. 張仲景所論 大靑龍湯證 小柴胡湯證 則少陽人表之表病也 李子建所論 腹痛泄瀉 則少陽人表之裏病也 王好古所論 上消中消下消證即 少陽人裏之表病也 張仲景所論 傷寒譫語證 與龔信所論 陰虛惡熱證即 少陽人裏之裏病也

29)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0條. 膀胱病 惡寒證 大便過三晝夜有餘 而危險者 用藥 則十之八九 必有生者也...

30) 甲午本 少陽人 泛論 13條. 表之表病 大目有五 ... 五曰 發熱惡寒身體痛

31)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0條. ... 大腸病 譫語證 大便秘閉者 二晝夜前命已傾矣 兩晝一夜 兩夜一晝則 十之八九 無及矣 宜用豫防錦上添花白虎湯 渡海白虎湯

32) 甲午本 少陽人 泛論 10條. 少陽人 裏之裏病 大綱有二 一曰 陰虛午熱也 二曰 傷寒譫語也

33) 甲午本 少陽人 泛論 12條. 表之裏病 大目有五 一曰 中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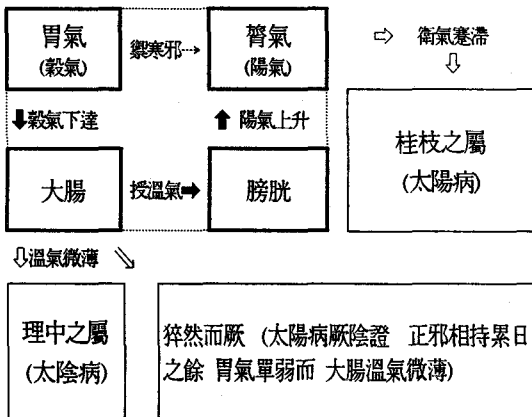
34) 甲午本 少陽人 泛論 31條. ... 浮腫喘促之病 膂膜清氣 凋殘不壯而 未達膀胱之病也 ...

35) 甲午本 少陽人 泛論 13條. 表之表病 大目有五 一曰 浮腫 ...

분이 확인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甲午本에서 少陰人의 胃의 胃氣(穀氣)→大腸→膀胱→膈의 膈氣(陽氣)의 氣循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膈膜衛氣蹇滯하면 桂枝之屬을 사용하고, 大腸溫氣微薄하면 理中之屬을 사용하라 하였다.³⁶⁾[표 17] 이는 膈部의 病證에 桂枝之劑를 사용하였기에 表之表에 해당하는 太陽의 病이라 유추할 수 있고, 大腸의 病證은 理中之劑를 사용하는 太陰의 病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표 18]을 만들 수 있으며 少陰人 表裏之表裏의 도표인 표 14와 비교해 볼 때 表之表裏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7] 少陰人의 氣循環 및 生病理 循環



[표 18] 甲午本 少陰人의 氣循環을 통한 表裏區分

胃 (少陰：裏之裏)	膈 (太陽：表之表)
大腸 (太陰：裏之表)	膀胱 (陽明：表之裏)

* : 굵은선안에 있는 부분은 표 14의 少陰人 表之表裏와 반대로 되었다.

둘째 東武는 太陽病厥陰證을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而 大腸溫氣微薄 猝然而厥”하여 생긴 病으로 표 17과 같이 少陰人 裏部位인 胃部와 大腸部의 病理的 상황으로 인해서 생긴 病이기에 病理機轉으로 보았을 때 裏病論에서 기술했어야 한다.

② 少陰人 少腹硬滿과 少陽人 心下結胸에서 맺구의 맞지 않는 구도

少陰人과 少陽人의 表氣의 衰弱하여 正邪의 싸움이 오래되어 裏氣(表之裏)까지 秘滯不和하여 變證으로 少陰人에서는 少腹硬滿이 생기고 少陽人에서는 心下結胸이 생긴다³⁷⁾고 설명하면서 少腹硬滿과 心下結胸을 맺구시켜 病理機轉을 설명한다.

그러나 甲午本 少陽人 泛論에서 少陽人과 少陰人의 相對되는 病證을 들면서 少陽人 寒熱往來胸脇滿과 少陰人 少腹硬滿을 맺구로 설명하고 있고,³⁸⁾ 少陽人 心下結胸과 少陰人 胃家實을 맺구로 설명하고 있다.³⁹⁾

즉 少陽人 表病論과 泛論에서 맺구로 설명하는 病證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모순된 내용들은 개초되면서 모두 삭제된다.

36)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55條. 膈氣衛外 膈氣者陽氣也. 胃氣管內 胃氣者穀氣也. 陽氣自膀胱 而上升於膈膜也. 穀氣自胃中 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 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 禦外寒以膈膜. 少陰人 傷寒病 正邪相爭 累日不決 則陽氣之上衝於膈膜者 蹇滯 故 胃氣之外以禦寒氣 而中以所自立者 亦單弱也. 胃氣單弱 則穀氣之下達於大腸者 亦微薄 故 膀胱之受溫氣於大腸者 又微薄也. 膈膜之衛氣蹇滯者 桂枝之屬 可以補之也. 大腸之溫氣微薄者 理中之屬 可以補之也. 蓋太陽病厥陰證 正邪相持累日之餘 胃氣單弱 而大腸溫氣微薄 故 猝然而厥也.

37)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20條. 論曰 少陰人 傷寒病 有小腹硬滿之證 少陽人 傷寒病 有心下結胸之證 此二證 俱是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裏氣 亦秘滯不和而 變生此證也. 少陰人病 膈間陽氣 未達上升而 困於膀胱則 其人如狂之證作而 外熱包裹冷 小腹生此病也. 少陽人病 膀胱陰氣 未達下降而 困於膈間則 口苦 咽乾 目眩之證作而 外冷包裹熱 心下生此病也.

38) 甲午本 少陽人 泛論 5條. 少陽少陰人病 以陰陽正對 而論之 則少陽人 寒熱往來 胸脇滿之證 與少陰人 太陽病 表證因在 而少腹硬滿者 相對也. ...

39) 甲午本 少陽人 泛論 5條. 少陽少陰人病 以陰陽正對而 論之則 ... 結胸與胃家實 相對也. ...

4. 辛丑本 病證論증에서 甲午本の 흔 적으로 보이는 용어들

1) 大腸怕寒과 腎陽困熱

甲午本에서 膈間陽氣困熱과 胸間胃氣怕寒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腎陽困熱과 大腸怕寒으로 바뀐다.

이는 甲午本에서 서로 맺구되게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 개초되면서 맺구가 되지 않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2) 凝聚膈間 膠固囚滯之證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의 基本病理는 膀胱(下焦)의 陰氣의 이상으로 膈間(中上焦)에 影響을 미쳐서 少陽病證狀이 생긴다⁴⁰⁾고 하여, 膀胱과 膈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少陽病을 기술한 것이다.[표 19]

辛丑本에와서는 脾局의 陰氣 이상으로 腎局에 影響을 미치고 膈間의 證狀이 나타난다고 하여, 腎局(下焦)의 이상으로 脾局(中上焦)에 影響을 미친다⁴¹⁾고 하여 脾局과 腎局이란 용어사용하였다.[표 20]

따라서 辛丑本으로 改抄되면서 病理說明이 더욱 더 정교해진 것을 볼수 있지만 “凝聚膈間 膠固囚滯之證”는 바뀌지 않았다. 이는 辛丑本으로 改抄하면서 바꾸지 못한 갑오본의 흔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9] 甲午本 少陽人 少陽病的 病理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肺	頭腦	
膈間 兩乳	胃	脾	背脊	凝聚膈間 膠固囚滯之證 ∟ 未達下陷 膀胱下陷之陰氣 爲熱邪所壅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 1) 嘔：裏熱上逆
- 2) 寒熱往來：陰氣凝聚 膈間未陷或陷
- 3) 口苦 咽乾 目眩 耳聾：陰氣囚滯 膈間欲降未降

[표 20] 辛丑本 少陽人 少陽病的 病理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肺	頭腦	
膈間 兩乳	胃	脾	背脊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 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凝聚膈間 膠固囚滯之病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 1) 嘔：外寒 包裡熱而 挾疾上逆
- 2) 寒熱往來：脾局陰氣 欲降未降而 或降
- 3) 口苦 咽乾 目眩 耳聾：陰氣囚滯膈間 欲降未降

3) 鬱縮膀胱之證

甲午本에서 少陰人 下焦血證의 病證을 설명하면서 中上焦의 膈와 下焦의 膀胱으로 膈間陽氣(中上焦)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膀胱(下焦)이 鬱縮되어 下焦血證이 된다⁴²⁾고 설명하고 있다. [표 21]

40)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11條. 論曰 張仲景所論 少陽病 卽少陽人 膀胱下陷之陰氣 爲熱邪所壅 未達下陷 凝聚膈間 膠固囚滯之證也 此證 嘔者 裏熱上逆也 當用千金導赤散 寒熱往來者 陰氣凝聚 膈間未陷或陷 故 其證 寒多熱少 而雖則鋼寒時亦發熱也 當用荊防敗毒散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囚滯 膈間欲降未降 ...

41) 辛丑本 9-8條.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連接於腎局 而凝聚膈間 膠固囚滯之病也 此證 嘔者 外寒 包裡熱 而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 欲降未降而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口苦咽乾目眩耳聾者 陰氣囚滯膈間 欲降未降故 ...

42)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13條十三.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病 下焦血證 卽少陰人 膈間陽氣 未能透表 而鬱縮膀胱之證也 以下出新本

辛丑本에서 역시 中上焦와 下焦部位인 脾局과 腎局으로 바뀌어 지면서 더욱 정밀하게 병리를 설명하고 있다. 脾局의 陽氣가 寒邪를 받은 연유로 생긴 것이다⁴³⁾고 하고 있는데[표 22] 여기서 脾局은 아마도 背脊部까지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鬱縮膀胱”이란 용어는 甲午本에서 사용되었던 동무의 고유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신축본에서는 적절한 용어를 바꾸지 못하였기에 갑오본에서 사용한 용어가 그대로 쓰여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甲午本 少陰人 下焦血證의 病理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肺	頭腦		
7臆間 兩乳	胃	脾	背脊	腎間陽氣 ↓ 未能透表 鬱縮膀胱之證	下焦 血證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표 22] 辛丑本 少陰人 下焦蓄血의 病理

前面部		後面部			
外(前)	內		外(後)		
舌下	胃脘	肺	頭腦		
臆間 兩乳	胃	脾	背脊	脾局陽氣 寒邪所掩抑 腎陽不能直升 ↓ 連接於脾局	下焦 血證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腎局陽氣 爲邪所拒 ↳ 鬱縮膀胱之證	

5. 甲午本에서 庚子本으로 고쳐지면서 篇의 所屬이 옮겨지는 條文들

甲午本の 條文들이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篇의 所屬을 이동하는 條文들이 보인다.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서 東武의 초기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했나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에 정리하여 보았다.

1) 같은 體質內에서 表裏病 篇의 所屬이 바뀌는 경우

① 少陰人 藏結에 관한 내용

少陰人 藏結에 관련된 甲午本の 少陰人 泛論 12條~14條⁴⁴⁾의 條文들이 辛丑本 少陰人 裏病論⁴⁵⁾에서 기술된다.

처음 藏結에 관련된 甲午本條文은 少陰人 裏病論의 14條⁴⁶⁾와 泛論의 12條~14條⁴⁷⁾로 나누어져 기술되고 있으나, 辛丑本에서 이 네 條文은 少陰人 裏病論에서 연속된 條文으로 합쳐진다.

甲午本에서는 “嘗見”로 시작하는 經驗의인 내용은 주로 泛論에서만 기술해 놓았는데, 藏結과 관련된 條文들은 실제 少陰人 裏病論 내용이지만 經驗의인 내용 때문에 관련된 기존 東醫寶鑑에서 引用한 몇 條文과 함께 泛論에서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少陽人 桂麻各半湯과 桂婢各半湯에 관한 내용

少陽人 表裏兼病과 관련된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3條~5條⁴⁸⁾는 辛丑本 少陽人 裏病論⁴⁹⁾으로 篇의 所屬을 이동한다.

43) 辛丑本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44) 甲午本 少陰人 泛論 12條. 張仲景曰 病有結胸 下三條出新本裡病論

45) 辛丑本 少陰人 裏病論 7-57條. 張仲景曰 病有結胸 有藏結 ... 7-58條 朱肱曰 藏結 狀如結胸 ... 7-59條. 論曰 嘗見少陰人 一人 心下右邊結硬 ...

46) 甲午本 少陰人 裏病論 14條. 論曰 結胸者心下結硬也 少陽人病 心下結硬者 ...

47) 甲午本 少陰人 泛論 12條. 張仲景曰 病有結胸 下三條出新本裡病論

48) 甲午本 少陽人 表病論 3條.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下二條出新本裏病論 5條. 今考更定 發熱 惡寒 熱多寒少而 身痒者 ...

辛丑本 少陽人 裏病論의 처음 3條文은 太陽經病을 언급하여 少陽人 裏熱病으로 오기 前段階의 도입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表證이지만 痰을 내지 못하고 石膏中心의 藥方인 桂麻各半湯과 桂婢各半湯을 사용해야 함⁵⁰⁾을 설명한 條文이다.

이는 甲午本에서 처음 病證論의 視覺에서 “太陽病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의 表病의 症狀만을 보아 表病論으로 分類를 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石膏를 중심으로 한 治法과 藥方을 중심으로 하여 裏病論의 맨 앞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太陰人 病證論에서 條文들의 所屬이 바뀐 경우

甲午本 太陰人 表病論 總 23條文을 살펴보면 1條~9條는 辛丑本の 太陰人 表病中 背佳頁病으로 이동한 條文들이고, 甲午本 太陰人 表病論 10條~23條는 辛丑本の 太陰人 裏病中 肝燥熱證에 해당하는 條文들이다.

甲午本 太陰人 裏病論의 10條文은 대부분 治驗例 중심이며 辛丑本으로 太陰人 病證論이 정립되고서는 3條文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따라서 甲午本을 쓸 당시 太陰人 病證論에 대한 分類와 理解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른 體質의 病證으로 篇의 所屬이 바뀐 경우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消渴의 腎氣丸과 관련된 條文인 16條~18條⁵¹⁾는 辛丑本에서 太陰人 裏病論의 燥熱과 관련된 條文들⁵²⁾로 옮겨진다.

甲午本에서는 既存醫學에서 말하는 消渴病

을 少陽人의 病으로 보았으나, 辛丑本에서는 이를 小便의 양상에 따라서 少陽人 消渴과 太陰人 燥熱로 나누었다. 이를 比較해보면 少陽人에서는 渴而多飲하면서 小便數 小便如膏油하여 小便을 자주보나 小便이 膏과 같고, 太陰人은 물보다는 小便을 더욱 많이 보는 증상을 나타낸다⁵³⁾고 할 수 있다.

辛丑本 太陰人 裏病論에서 “論曰 此病 非少陽人消渴也 卽 太陰人燥熱也 此證 不當用 腎氣丸 當用 熱多寒少湯 加 藁本 大黃”라 하여 東武가 甲午本 당시에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IV. 考 察

1. 東武는 膈, 膀胱, 腦髓, 腰脊, 胃, 大腸, 胃脘, 小腸 등으로 脆弱部位에 해당하는 用語를 사용하여 篇名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를 病의 症狀 또는 體質別 四大病證과 결부시켜 大腸病證語, 膀胱病惡寒, 太陽膀胱, 太陰大腸, 太陰病泄瀉大腸之泄瀉, 少陰病泄瀉胃中之泄瀉 등으로 사용하였다.

表裏之表裏에 따라 구분된 四大病證은 體質別로 脆弱하거나 强盛한 部位의 명칭을 엮어서 病理를 설명하였고, 雜病에 대해서도 이러한 틀에 配屬시키고자 하였다.

少陽人論과 少陰人論은 이와 같은 體系에 의한 病理 설명이 主를 이루었으나, 太陰人論은 四大病證을 表裏之表裏로 나누어 놓긴 하였으나 이를 위주로 한 病理的 설명은 보이지 않았고, 太陽人論은 네 개의 구도가 아닌 表裏病證의 두 개 구도로만 나는 상태였다. 少陰人과 少陽人의 寒熱代謝와는 전혀 다른 概

49) 辛丑本 10-1條. 張仲景 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 10-2條. 太陽病 似瘧 發熱惡寒 熱多寒少 … 10-3條. 論曰 此證 大便 不過一晝夜而通者 …

50)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 117.

51) 甲午本 少陽人 裏病論 16條. 內經曰 二陽結 謂之消 飲一洩二 死不治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熱結也 17條 扁鵲難經曰 消渴脈 當得緊實而數 反得沈瀄而微者死 18條.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52) 辛丑本 太陰人 裏病論 13-20條. 靈樞曰 二陽結 … 13-21條. 扁鵲難經曰 消渴脈 … 13-22條. 張仲景曰 消渴病 …

53)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研究. 前掲書 : 60.

念의 太陰人과 太陽人 氣液代謝로 病證을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에서 두 體質의 病證을 比較, 分析하여 病理를 풀어가고 있으며, 泛論이 기술된 것은 病證論의 視覺이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太陰人論과 太陽人論에서 두 체질의 병증을 비교, 분석하는 病理的 기술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泛論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病證論의 시각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少陰人論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에서 發熱惡寒無汗과 發熱惡寒有汗을 辛丑本에서 鬱狂과 亡陽으로 表病證을 二大分한 것과 달리 甲午本에서 太陽病 범주에 넣었으며, 甲午本에서는 惡寒의 有無에 따라서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二大分하였고, 亡陽에 대한 개념이 甲午本에 있었지만 하나의 大病證으로 운용할만한 정도는 되지 못하였으며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辛丑本과 甲午本의 구성이 일치하며 甲午本 泛論의 내용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庚子本으로 옮겨진 것을 보면 甲午本 당시에 少陰人에 대한 病證概念이 거의 完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少陽人論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을 보면 表之裏病의 腹痛泄瀉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축본의 亡陰病으로 改抄되면서 “盤龍山老人 論曰” 등의 文句를 사용하여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消渴 범주에 넣었던 몇몇 病證을 庚子本으로 改抄하면서 太陰人 燥熱證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表病證과 裏病證은 辛丑本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泛論에서는 少陰人 病證과 처방을 어떻게든지 연관시켜 보려던 시도가 보였으나 구조적 矛盾

盾등으로 인하여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삭제되어 少陰人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病證體系를 이루게 되었다.

5. 太陰人論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을 보면 表病論에서 惡寒發熱長感病(表之表病)과 陽毒燥澁(表之裏病)으로 나누어 病理를 설명하고 있으나, 表之裏病人 陽毒燥澁은 庚子本으로 改抄되면서 裏病論에서 다루고 있다. 裏病論에서는 病理的 기술이 전혀 없었으며, 證例-處方 형식으로 少陰人과 少陽人의 泛論 또는 北韓 保健省 東武遺稿에서 볼수 있었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甲午本 당시에 太陰人의 表病과 裏病의 구분은 辛丑本과 완전히 달랐으며, 裏病論에 대한 病證概念이 정립되기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太陰人論, 太陽人論은 少陰人論, 少陽人論과 달리 芻語를 이루어 설명하는 條文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條文數 역시 많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甲午本 당시에 少陰人 病證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少陽人 病證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에 대한 이해는 매우 떨어진 상태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6. 甲午本에서는 上下表裏內外 관계로써 病證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보였다. 먼저 篇名에서 시작되어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에서 上下表裏內外 관계를 대표하는 胃, 膈, 大腸, 膀胱의 용어를 少陰人의 少腹硬滿, 其人如狂, 下焦血證, 氣循環, 太陽病과 陽明病의 基本病理, 表裏兼病時의 病理와 少陽人의 少陽病 基本病理, 結胸, 譫語證, 惡寒證 등에서 사용하게 된다.

少陰人論과 少陽人論의 表裏之表裏는 表病證과 裏病證 部位에 대해서 人體의 後面인 膈

部와 膀胱部를 表部로 하였고, 偏小之臟을 表裏之裏로, 偏大之臟을 表裏之表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인체의 部位와 病證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少陽人의 膀胱病 惡寒證, 大腸病 譫語證, 膈膜之病 中風, 膀胱之病 浮腫⁵⁴⁾은 동무가 짜 놓은 表裏之表裏의 구도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表裏의 區分에 대해서 東武는 少陰人論에서 膀胱은 表局이고 膈膜은 裏局이라 하였는데⁵⁵⁾ 여기서 表局은 表之表를 가르키고 裏局은 表之裏를 가르키고 있으며 "少陰人病 張仲景 以太陽陽明論表裏 背部上下 論表裏"라 하여 傷寒論의 視覺을 접목시키려 하였으나 表病論에서만 해당되는 내용만 언급하였고 裏病論에 대한 내용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少陽人論에서는 表部位가 少陰人論과 同一하나 구체적으로 表局과 裏局으로 나누어 기술하지 않았고, 少陰人 表病證 少腹硬滿과 少陽人 表病證 結胸을 맺구로 하여 기술하면서 少腹硬滿은 背部上下로써 表裏를論하였지만 結胸은 胸背腹脊으로써 表裏를論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少陰人 表病證인 少腹硬滿은 東武가 짜 놓은 表病證의 部位인 背部로써 병리설명이 가능하였지만, 少陽人 表病證인 結胸은 表病證 部位인 背部로써 설명이 되지 않았고, 少陽人과 少陰人 病證은 맺구로써 病理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少陽人 病證과 少陰人 病證을 반대로 보는 視覺은 庚子本으로 개초되면서 거의 사라지고 각 體質別 病證을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7. 甲午本の 條文을 辛丑本과 비교해 볼 때 篇의 所屬이 다른 條文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같은 體質내에서 表病과 裏病을 넘

나드는 條文들이 많이 보이는데 甲午本 太陰人 表病論의 절반이 辛丑本에서 裏病論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甲午本 당시 太陰人 表裏病의 구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少陽人 表裏兼病人 桂麻各半湯證과 桂婢各半湯證은 甲午本에서 表病論이었으나 辛丑本에서 裏病論에서 기술된 것은 이같이 表裏區分이 애매한 경우 처음 病證을 중심으로 하여 表病論에서 기술하였으나 나중에는 石膏라는 藥物中心으로 하여 裏病論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少陰人 藏結과 관련된 條文이 甲午本에서 裏病論과 泛論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辛丑本에서는 裏病論에서 합쳐졌다.

그리고 他 體質로 移動하는 條文이 한군데 보이는데 甲午本에서 少陽人 消渴에서 함께 다루어진 내용이 辛丑本에서는 太陰人 燥熱로 옮겨갔으며 腎氣丸이 辛丑本에서 藥方은 少陽人論에 있었으나 關聯된 條文은 太陰人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緣由에서 기인한 것이다.

8. 또 하나 특징적으로 體質別로 保命之主의 名稱이 辛丑本에는 없으나 甲午本에서 있었으며 이는 正氣中心으로 病證論을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結 論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를 중심으로 甲午本の 病證論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各 體質別 病證을 表之表, 表之裏, 裏之表, 裏之裏로 나누어 人體部位에 配屬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病證을 기술하였다.

54) 甲午本 少陽人 泛論 31條. ... 浮腫喘促之病 膈膜清氣 凋殘不壯而 未達膀胱之病也 ...

55) 甲午本 少陰人 表病論 32條. ... 膀胱表局外禦之陽不足 ... 膈膜裡局內守之陽不足 ...

2. 少陽人は 少陰人と 病證 및 病理는 서로 대비되게 기술하면서 완성도가 높았지만, 太陰人と 太陽人の 病證과 病理는 설명이 부족하며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3. 少陰人 表病證은 惡寒의 有無에 의해서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구분하였으며, 裏病證은 太陰病과 少陰病으로 辛丑本과 동일하다. 甲午本에서 이미 鬱狂과 亡陽의 概念이 존재하였기에 他 體質論에 비하여 病證論의 初期에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4. 少陽人の 寒熱概念, 病證 및 病理에 대해서 少陰人の 正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表之裏病에서는 단순히 腹痛泄瀉만을 언급하여 亡陰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으며 甲午本에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裏之裏病의 傷寒 譫語發狂의 내용이 개초되면서 亡陰證으로 옮겨가고 많은 내용들이 보충된다.

5. 太陰人論의 病證分類 및 處方의 藥物構成은 辛丑本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氣液代謝로 표현되는 生理·病理 機轉으로 전혀 病證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6. 甲午本에서는 正氣中心의 保命之主를 中心으로 病證이 運用되고 있다.

參考文獻

1.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1998.
2.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麗江出版社. 1994.
3.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2000.
4.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5. 李濟馬著, 洪淳用, 李乙浩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5.
6.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表裏病證 篇名에 대한 小考. 사상학회지. 1994 ; 6(1) : 81-87.
7.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1994 ; 5(1) : 71-79.
8. 李壽瓊, 宋一炳.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9. 이준희,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病證論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49-61.
10. 韓昶錫,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藥方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74-93.
11. 韓昶錫,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의 書誌學的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 13(2) : 94-109